



검찰연합일보 모바일 보기



고위공직자범죄신고
02-6320-0200



김행, 野고발에 “당당히 수사 응할것” 청문회장 CCTV 공개 요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민주당이 저를 공동 창업자의 주식 인수 과정에서 퇴직금을 회사돈으로 줬다는 식의 배임행위를 고발했다”며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이제야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됐다. 고발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뉴스코인)는 포털 사이트에서 독립해 독자적으로 뉴스를 배포하기 위한 언론사들의 생존전략”이라며 “야당 주장대로라면 이들 언론사 모두 코인쟁이가 된다. 여야 합의로 가장 공신력 있는 검증 기관을 선정하신다면 회사의 뉴스코인 보유 내역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법인 위키트리와 스텀트 코인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업비트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키트리는 애초 업비트 계정 자체가 없어 스텀트 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며 “위키트리 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나는 인수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550호)에서 1분 거리인 대기실(559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면서 “당일 CCTV를 보면 단박에 확인된다”고 자신했다.

김 후보자는 코인 보유 및 투자 논란과 관련해 “결단코 코인을 보유하거나, 코인을 거래하거나, 코인으로 돈을 번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독자 보상으로 회사 차원에서 ‘뉴스코인’에 투자했으며, 뉴스 독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절대로 투기성 코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뉴스코인)는 포털 사이트에서 독립해 독자적으로 뉴스를 배포하기 위한 언론사들의 생존전략”이라며 “야당 주장대로라면 이들 언론사 모두 코인쟁이가 된다. 여야 합의로 가장 공신력 있는 검증 기관을 선정하신다면 회사의 뉴스코인 보유 내역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난 행방불명 된 적 없어…‘백지신택’ 관련 주식이동 과정 검증받겠다”

그는 “공통창업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회사에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자신이 청문회장을 나온 뒤 행방 불명됐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청문회 당일 국회 CCTV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별도 입장문에서 퇴직금 지

검찰, ‘통계조작 의혹’ 통계청 관련 실무자 조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청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관련 실무자도 불러 조사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전날 통계청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통계청이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여하지 말라’며 임의로 진행했다”면서 “정당한 통계 보정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은 지난달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됐다.

감사원은 전 정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 개입해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전임 정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관리대상행태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 정희성 기자

은행 대출금리 ‘도미노 인상’ 시작…대출 억제 위해 가산금리 ↑ 다른 은행들도 ‘대출 쏠림’ 우려로 조만간 올릴 듯

주요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가산금리를 늘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최근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대출 수요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영업점 등에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와 신안예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신규)를 각 0.1%p, 0.2%p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신안예코픽스 기준 전세대출 변동금리(6개월 신규) 역시 0.2%p 높아졌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해 금리 운용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며 “변경 이후에도 당행의 대출금리가 주요 은행들 가운데 낮은 편으로, 특히 혼합형 금리의 경우 은행권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오는 13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만 34세 이하’에만 대출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p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3%p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내부적으로 현재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이번 주 중 인상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시중은행들의 이런 금리 인상과 초장기 대출 상품 연명제한 조치 등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수요 억제 요인에 대한 호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KB나 우리, 신한 외 은행 중에서도 금리 인상을 준비하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른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동안 금리를 같이 인상하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금융당국과 5대 은행 부장단은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수요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3천294억원으로 8월 말(680조8천120억원)보다 1조5천174억원 늘었다. 5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조8천591억원(514조9천997억원→517조8천588억원) 불었는데, 이 증가 폭은 2021년 10월(3조7천989억원) 이후 가장 컸다. / 이재성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더 쉽게

신나게 즐겼으니
모두가 워너야
모두가 신한이야

메달보다 값지고 신기록보다 아름다운 건 오천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즐겼던 순간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최고의 승부를 펼쳐 준 국가대표팀 선수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워너입니다.

멋진 플레이로 팀방울의 가치를 증명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Shinhan

신한금융그룹

정류장·농장·집안서 학살 정황...“아기 시신도 무더기”

이스라엘 20여곳서 민간인 시신 속출...‘참수 추정’ 영유아 시신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1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근에 있는 크파르 아자 키부츠에서 살해된 이스라엘인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침투한 이스라엘 집단농장 곳곳에서 영유아와 어린이를 포함해 잔혹하게 살해된 주민들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들은 주말 아침 집안에서 잠을 자다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차안에 있다가, 시내에 있다가 또는 가까스로 숨어있다가 살해됐다.

하마스는 유대교 안식일이던 지난 7일 새벽 대대적인 로켓포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남부 키부츠(집단농장)와 소도시 등 20여곳에 침투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1천명 이상을 살해했다. 가자지구로 납치된 주민도 15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침투한 지역의 통제권을 되찾은 뒤 집집마다 돌며 벌인 수색 작업에서는 곳곳에서 시신이 계속해

서 발견됐다.

해당 지역의 방범 카메라와 주민들의 휴대전화 영상과 사진, 생존 주민들의 증언 등을 통해서도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중 한 곳인 크파르 아자 키부츠에서는 아기를 포함해 온 가족이 침실 등 집안에서 총에 맞아 몰살된 사례가 군 수색 과정에서 잇따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아기 시신만 40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어린이는 참수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스라엘 군인과 구조대는 크파르 아자 키부츠에서만 아마도 수백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부 외신과 함께 이 마을에 들어간 NYT 기자들은 잔디밭과 집안을 비롯한 다른 장소에 있는 시신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아기들과 엄마, 아빠들이 그들의 침실과 대피실에서 어떻게 테러리스트들에게 살해됐는지를 보라”면서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전횡이다. 이것은 대학살”이라고 말했다.

베에리 키부츠의 경우 전날에만 100구

이상의 시신이 발견됐다. 가자지구에서 1.6km 거리에 있는 도시 스테로트에서도 최소 20명의 민간인이 살해됐다. 이들은 차안이나 고가도로 밑에서 총에 맞았다. 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7명의 민간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의 음악 축제 행사장 주변에서는 무려 260구의 시신이 한꺼번에 발견된 바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한 여성은 가자지구 인근 니르오즈 키부츠의 주민인 자신의 할머니가 지난 7일 자택에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에 의해 살해됐으며, 이들이 살해 영상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여성은 영국 BBC 방송에 이스라엘 남부의 한 키부츠에 살고 있던 자신의 사촌과 각각 4세, 9개월인 조카가 하마스 무장대원에게 둘러싸인 영상을 봤다고 주장했다.

아부 우바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민간인 주택을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간인 인질 1명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 최민용 기자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강서보선 전 날 선관위 해킹 발표...정치개입 안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감 기간 중안건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을 발표한 데 대해 “국정원이 또다시 과거 버릇을 못 버리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그는 “대통령이 무적격자인 솔친구를 대법원장 후보로 임명하려던 의도가 결국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인가”라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김 후보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국민의 힘의 정식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유튜브 채널 ‘김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에 “이재명 오면 논의”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22일 합동점검 결과가 끝난 내용을 굳이 보궐선거 하루 앞둔 날 국정원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선관위가 해킹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 국정원이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과 국정원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 정치 개입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이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에 대한 심판’을 주장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법관 개개인의 독자적 판단에 이런 위협을 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일부가 윤리심판원에 갈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경고 정도로 끝날지, 지도부의 경고로 끝날지 그런 것 자체는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당 대표가 오면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대표 뜻이 중요하지만,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절차적으로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표결 자체만으로는 (징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여러 말씀이나 행동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두 자릿수 차이로 못 이길 경우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 한계 아니냐는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면서 “이거면 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 민재홍 기자

가자지구 지상전 임박한듯...고속도로 경계로 탱크·헬기 집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맞붙 공습으로 교전을 이어가는 와중에 가자지구 인근 자국민에게 대피령을 내리면서 지상 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간) 전날 밤 이스라엘이 가자 인근 지역 자국민들에게 대피를 준비하고 72시간 동안 필요한 음식과 물, 다른 물자를 충분히 마련하라고 알렸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를 두고 가자지구로의 지상 작전이 임박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날 오전 이스라엘군(IDF) 대변인은 가자지구에 이미 수백 톤의 폭탄이 투하됐으면서 “정확성이 아니라 피해에 방점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불길의 솟아오르고 있다.

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의 지상 작전에

이러한 가운데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경계를 따라 뻗어있는 이스라엘의 232번 고속도로가 양측의 새로운 전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전했다.

10일 오전 이 도로를 둘러싼 지역에서는 공습과 대포 소리가 들리고 이스라엘 탱크가 지나갔으며 군용 헬리콥터가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도로 주변에는 하마스 전투원으로 보이는 이들의 시신과 포격에 타고 부서진 차들이 버려져 있는 등 격렬한 전투의 흔적을 드러냈다.

영국 BBC 방송은 이스라엘이 공습을 강화하면서 가자지구에서는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고 전했다. 과거 교전 때는 일부 안전지대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설명이다.

/ 홍명섭 기자

I Dream

로봇친구

“엄마~ 로봇친구가 생겼어요!”

지민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금융위원장 “은행 50년만기 주담대, 금융상품 상식에 맞지 않아”

“변동금리에 나이제한 없고 다주택자도 포함…특례보증자리론과 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민간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금융상품 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답변하는 금융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부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지적한 것이 ‘책임 떠넘기기’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물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은 대통령 공약인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했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이야기한다”면서 “금융당국이 문제 원인은 빠고 현재 상황을 보고 지적하는 유체이탈화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특례보증자리론 50

년 만기는 연령이 34살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은행이 지난 6~7월에 늘린 건(50년 만기 주담대)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이 없고 다주택자를 포함한다.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 50년(만기 상품)을 하고 은행은 (못하게 하느냐)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 부채는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된다”면서 “통상 부채 수준이 높으면 상환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라면서도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민생 서민 취약계층

에 대한 자금이나 무주택서민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살 때 자금은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부채의 수준, 그리고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점점 낮아지는 데 있다”면서 “돈을 벌어야 부채를 갚을 텐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기업이 활동을 잘해서 소득을 늘게 하고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더 늘지 않게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축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강찬우 기자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 A씨가 11일 오전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모텔서 낳은 딸 창밖 던져 살해한 엄마 구속...“도주 우려”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1일 영아살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김재향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고 (A씨에게)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3일 만인 지난 9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B양은 침대에 보인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당일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

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혼자 모텔에서 낳은 아이가 계속 울어 무서워 창문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하자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칼 쥐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이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다만 “추락에 의해 간 파열과 복강 출혈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은 정밀 감정을 해야 알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일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

설탕 16.9%·소금 17.3%...물가 상승률, 1년 만에 동시 최고치 가공식품·외식 물가 자극하나...‘슈거플레이션’ 가능성 주목

지난달 설탕과 소금의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동시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등에 많이 사용되는 설탕과 소금 물가가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를 다시 자극하지 않을까 주목된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설탕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41.58로 지난해 동월보다 16.9% 상승했다. 이

는 지난해 9월(20.7%) 이후 1년 만의 최고치다.

설탕 물가 상승률은 올해 7월 4.0%에서 8월 13.8%로 급등한 데 이어 지난달 더 올랐다. 지난달 설탕 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3.7%)의 4.6배에 달했다. 이는 가공식품 부문의 물가 상승률(5.8%)과 비교하면 2.9배에 이른다.

설탕은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다. 이 때문에 가공식품 물가에 영향을 미쳐 ‘슈거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달에는 원유(原油) 가격이 올라 우유가 들어가는 빵, 과자, 아이스크림 가격 등이 잇따라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 제과업체 관계자는 “설탕과 함께 코

코아 가격도 많이 올라서 원가 상승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설탕 가격 추이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소비 위축에 당장 제품 가격을 올리지는 않지만, 설탕 등 원재료 가격의 변동 폭이 커질 경우 가공식품과 외식 제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소금 물가도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

지난달 소금 물가 상승률은 17.3%로 지난해 8월(20.9%)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 백경준 기자

학폭 폭로 표예림씨, 극단적 선택 전 모욕 등 4건 고소 당해

지난달 고소장 접수·경찰조사 앞뒀...스토킹 지목 유튜버 “잘못 없다”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 판 주인공으로 알려진 유튜버 표예림(27)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다수의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표씨는 올해 9월 한 유튜버 A씨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표씨는 학창 시절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한 단체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됐으나 서로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표씨는 A씨로부터 4건의 고소를 당했고, 표씨가 A씨를 상대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도 7건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표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지난달로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A씨에 대한 조사는 주소지인 서울의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경우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표씨는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해 자신이 초중고를 졸업한 경

남지역 경찰서에도 3건 정도의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표씨는 앞서 유튜브에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동영상 올렸다.

그는 이 동영상에서 자신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며 자신의 생으로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1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표씨가 마지막 동영상에서 자신을 저격·인신공격하고 있다고 거론한 유튜버 A씨는 “표씨가 범죄 공방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나 우리가 범죄 혐의에 의해 피해를 봤지,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는 영상을 올렸다.

표씨의 학교 폭력 피해 사건을 공론화한 유튜버 ‘카라콜라 탐정사무소’는 유튜버 A씨를 겨냥해 “유튜브 채널과 SNS까지 개설해 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 영상을 게시해 ‘사이버 집단 따돌림’과 스토킹을 했던 장본인이었다”며 “한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양희진 기자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기계적 자료 수집만...판단 안 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질문에 “판단은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은 법무부가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



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

한 자료를 넘기고 따로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특정한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통상적으로 했다”고만 답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등 개인적 문제가 불거지고 여야가 강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지난 6일 국회 표결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 박도훈 기자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당신은 항상 웃을 수 있게

**겪어보면 다른 보험
현대해상**

마음이 **함니다**
H 현대해상

학폭 폭로 표예림씨, 극단적 선택 전 모욕 등 4건 고소 당해

지난달 고소장 접수·경찰조사 앞뒀...스토킹 지목 유튜버 “잘못 없다”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기계적 자료 수집만...판단 안 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질문에 “판단은 대통령실”

복지부 국감서 여야 '문재인 케어·의료 불균형' 공방

與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로 2025년 건보 재정 소진 野 “의료 취약지에 무대책...의대 정원 확대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여당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확대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이전 정부가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최영희 의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흑자였

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7년 20조원이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에 소진이 예상된다”며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지 않는 것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분석했다.

최재형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9.1%가 180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치료’가 아닌 ‘돌봄’을 받으면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돌봄까지도 상당 부분 떠맡아야 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한 부담을 하게 된다”며 “요양과 돌봄이 각각의 목적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방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소아 의료 인력 부족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정원 확대 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숙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추천과 안동 지역 중증 환자 사망률이 다른 지역의 1.3~1.7 배에 달하고 소아암 환자의 70%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천명씩 늘려도 2035년 국내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3.49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명당 4.5 명에 못 미친다”며 “OECD 평균의 80% 정도는 도달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전남권 등 지방 국립의대 신설과 연동되지 않는 의사 정원 증원은 수도권 성형외과 의사만 양산하고 말 것”이라며 “의료 취약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하고 무대책이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입시에 정원 확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선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여론과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시기가 계획돼 있느냐”고 물었다. / 김희성 기자



우리 해양 생태조사 지원 확대 설명

“오염수 장기간 추적조사 필요” 질병청 보고서 놓고 공방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정부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프리즘’에 공개된 질병청 연구용역보고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주관연구기관 대한재난의학회)를 보면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 “(오염수와 관련해)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핵종 제거설비(ALPS)의 정화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국민건강영양 평가 모델을 새로 설정하고 전향적으로 조사해 데이터를 수집·관리해야 한다’, ‘저선량 방사선에 대해 아직 인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 등의 표현도 담겼다. ALPS를 거쳐 처리된 오염수가 국민건

강 면에서 안전하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니 장기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고서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윤 정부 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담고 있다”며 “내용을 보면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연구용역을 발주한 질병청은 이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지적도 야당 의원들로부터 받았다.

질병청은 당초 이 보고서를 비공개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으면서도, 의원실에 국가자료로 제출한 ‘비공개 연구용역 현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논란이 되자 질병청은 뒤늦게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하고 프리즘에 공개했다.

질병청은 “사전 조사로서 관련 국내의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인 조사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재일 기자

선관위, 내년 총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실시간 공개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모 든 지역구의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실시간으로 국민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투표함 관리 투명성을 강화해 ‘사전투표 조작’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을 해

소하겠다는 취지다. 선관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화면 24시간 송출을 내년 총선 때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일부터 서울 강

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CCTV 화면을 청사 1층 현관 모니터에 24시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 CCTV 화면은 기존에도 선관위 근무 시간에 상황실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었으나, 선관위는 이번 보선에서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 CCTV 화면을 24시간 송출하는 모니터를

설치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번 보선에서 시행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실시간 송출을 내년 총선에서는 전체 지역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도별 선관위 청사 등 공개된 장소에 영상 암호화와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지역구별 CCTV 화면을 하루 종일 송출하는 방식이다. / 서종익 기자

與 “선관위 해킹 방지 대책해야”...민주당·文정권 겨냥 “반성할 줄 모르는 선관위, 대국민 사과하고 시스템 개선해야”

국민의힘은 11일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모두 해킹이 가능하다’는 보안 컨설팅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 선거관리 시스템을 방치한 자들을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임 정부 시절 발생했던 ‘소쿠리 투표’ 사건을 계기로 선거관리 시스템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도 실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기표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는 등 심각한 선거관리 부실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선관위가 투·개표 시스템마저 해킹에 무방비로 방치했다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일부 조작은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명하지만, 내부 공모 가능성이 100%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안 수준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방치해둔 채 국민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고 거짓말해 온 자들을 발본색원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 정권은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개선 조치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버렸는데, 그들이 선거 결과를 자신들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한 대역 음모의 수단은 아니었는지 그 진실 또한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차제에 전체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해 제2, 제3의 부실 선거, 조작 선거 논란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등 국제 해킹조직이 사용하는 수법만으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나온 것”이라며 “선관위 보안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총선이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았다. 현재와 같은 선거관리 시스템으로 치른다면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이 불신받을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전주해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가 전날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 가능성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 “헌법 기관 운운하며 감사도, 조사도, 점검도 선거관의 민낯이 드러났지만, 선관위는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역시 ‘보궐선거 전날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선거 개입 의도’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기 바빴다”며 “선관위 ‘구멍’은 대한민국 ‘구멍’이다. 구멍 난 선관위, 국민의힘이 날날이 밝히고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 한정민 기자

최용규 변호사, 포항남구·울릉 총선 출마 선언



최용규(54) 법무법인 도올 포항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1일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남구·울릉 선거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최 변호사는 “통합의 리더십, 강한 추진력으로 포항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룰 수 있도록 온몸을 던지겠다”고 밝혔다.

울릉에서 태어난 그는 포항 대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39회로 합격해 검사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대구고검 부장검사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 노정윤 기자

어려웠던 엔(¥)테크, 내 편 하나가 생겼다

FX마켓으로 손쉽게 환테크하고,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으로 스마트하게 사용하면 끝

내 편 손님 상담센터 (☎1566-0034)

FX마켓 원화, 외화, 계좌 간 손쉬운 이체가 가능한 모바일 개인 달러 서비스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해외주식에서 해외결제까지, 최대 10개국의 통화 예치가 가능한 외화, 다통화 일괄금 통장

하나은행

검찰, 이정근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구형

뇌물 수수 혐의로는 지난 4월 1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작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육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직무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씨는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법정 향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8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그 과정에서 금전문제나 금전사고는 단 한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

했음에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의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 등 11명에 대해서도 "제 선거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이라며 "제가 벌을 달게 받을테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라"고 호소했다.

작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씨는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 등 10여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씨는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작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 황승길 기자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 피의자 검찰 송치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 주범·공범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범행 도운 공범의 아내에게 무기징역 구형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을 청부한 주범과 이를 실행한 공범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1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범 박모(55)씨와 공범 김모(50)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을 도운 김씨 아내 이모(45)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앞서 지난 7월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주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김씨 아내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2분에서 10분 사이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천8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김씨 아내 이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며 위치 정보 등을 남편에게 전달했으며 범행 뒤 차량으로 함께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 부부는 범행 대가로 약 2억3천만 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박씨 제안에 넘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가해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살인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씨는 남편이 살인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살인을 청부한 박씨는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사건의 중대함을 깨닫고 진지한 반성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범행을 실행한 김씨는 피해자가 예상 못한 정도로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하지만 부검 결과와 현장 상황 등을 볼 때 그런 주장을 믿기가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는 벌을 응당히 받겠지만 살인에 대해서만은 사주나 지시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드린 점 사죄드린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아갈 것"이라며 사죄에 대해 "죄를 인정 못 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 이런 사람을 믿고 따른 저 자신이 미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2월 열릴 예정이다. / 오민수 기자

'난폭운전' 몽골대사관 외교관 적발

음주측정엔 "면책특권"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에 서울 영등포구 김포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주변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가속·급제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운전을 의심한 주변 운전자가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

을 시도했으나 A씨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정황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몽골대사관 직원이 현장에 와 A씨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규정한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 최후호 기자

'8분지각' 이유로 교사가 학생 뺨 때리고 폭행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지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대전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교사 A씨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쳤다.

등교 시간보다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한 B군에게 A씨가 지각 사유를 묻자 B군이 "늦잠 잤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벌어진 일이다. 곧이어 복도로 나간 B군이 A씨에게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하자 A씨는 B군의 뺨을 두 대 때렸다. 이를 목격한 일부 학생들이 교장실로 가 상황을 알렸고 당시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폭행 모습이 담겼다.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난 B군은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학교는 A 교사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대전시교육청은



목에 남은 폭행 흔적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에 따라 B군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만, 학생과 가해 교사의 '분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아 교사 A씨는 별다른 제재 없이 여전히 담임을 맡고 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B군 보호자는 매일 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마주해야 하는 B군이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가해자인 A씨를 피해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 최현미 기자

신용 UP 채무 DOWN

신용회복위원회

값기 힘든 빛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희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



신용회복위원회 홍보대사 배우 차인표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법원 채무조정제도

연체 0~30일	연체 31~89일	연체 90일 이상	법원 신청 접수 지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지원 (소송구조기관 연계)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이차율 채무조정)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실직/휴직/폐업/질병/신용도하락 등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안되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분에게 유리한 제도	

신용복지컨설팅

- 신용컨설팅**
- 전문컨설턴트와 1:1 전화상담
- 신용도우미**
- 앱을 통해 신용관리 솔루션 제공
- 신용비타민**
- 유용한 정보를 모아 알림톡 발송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접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용회복위원회 APP(셋넷)을 통해 24시간 비대면 상담하세요

전화상담 ☎1600-5500

채무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인터넷 상담

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채무조정 신청
· 상담방법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상담 신청 후 상담신청서와 전화상담

美, 블링컨 이스라엘에 급파...시나리오별 비상대응책 수립 착수

바이든 “아이언돔 보충’ 요격무기 등 이스라엘 추가 군사지원 준비돼 있어”



이스라엘 사태 관련 대국민 연설하는 바이든

미국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전시 상태'에 돌입한 이스라엘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급파, 향후 대응 관련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란의 가세에 의한 '중동전쟁'으로의 확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상대응 계획 수립에도 착수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이 12일 이스라엘에 도착해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을 면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이 같은 끔찍한 공격을 자행한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싸움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사태가 '중동전쟁'으로 확산할지 여부의 길목에서 이스라엘을 찾는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 지원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하마스에 납치된 미국인들의

무사 귀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러 대변인은 “현재 블링컨 장관은 가자 지구로 접한 모든 인질들의 안전한 석방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는 군사 작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

“이스라엘서 미국인 14명 사망, 하마스 인질 포함 20여명 실종”

백악관 안보보좌관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앞으로도 그럴 것”

다”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블링컨 장관은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향후 대응 구상을 청취하고, 공조 방안 등을 조율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미측은 전(全) 이슬람권의 반미, 반이스라엘 단일대오 구축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군사 행동은 자제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두번째로 행한 연설에서 제럴드포드 항공모함 전단을 이스라엘 인근 동지중해로 이동 배치하고

중동지역 전투기 전투 배치를 강화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군사자산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에 “탄약과 아이언돔(이스라엘의 대공 방어 체계)을 보충할 요격 무기들을 포함한 추가적 군사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민간인 1천명 이상이 학살”당했다면서 그 중 미국인 사망자가 14명 포함됐고, 하마스에 인질로 잡힌 미국인들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관련해 실종된 미국인의 규모를 “20명이나 그 이상”으로 언급하면서 이들 전부가 하마스의 인질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또 하마스의 ‘배후’로 의심되는 이란의 개입에 따른 확전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긴장 악화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우리는 이 계획수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잠재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의 중”이라면서 “현재 정세를 악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적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제럴드 포드호를 비롯한 항모타격단을 이스라엘 인근으로 전진 배치키로 한 의미에 대해 “하마스 때문이 아니라 전쟁 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들에 분명한 억제력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송진영 기자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자격정지 결의안을 표결한 유엔총회

리, 우크라진 책임에 유엔인권이사회 복귀 불발...中은 재선 성공

지난해 이사국서 퇴출당해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범죄 논란으로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퇴출당한 러시아가 이사국으로 복귀하는 데 실패했다.

10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이날 유엔총회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15개 국가가 내년부터 3년 임기의 신규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 47개국이며, 이 가운데 임기가 만료되는 자리를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비공개 투표로 새로 선출한다.

동유럽 국가에 돌아가는 신규 이사국 자리는 2개로, 알바니아와 불가리아에 돌아갔다.

인권이사회 이사국 복귀를 노리던 러시아는 83표를 받아 불가리아(160표), 알바니아(123표)에 표결에서 밀렸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면전을 일으킨 뒤 부차 등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유엔총회 투표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했다. 심각한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른 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유엔 규정이 근거가 됐다.

러시아는 인권이사회 선거를 앞두고 ‘침묵하는 다수’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을 펼쳤으나 결국 유엔 회원국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루이 샤르브노 휴먼라이츠워치(HRW) 유엔 담당 이사는 “유엔 회원국들은 수많은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선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러시아 지도부에 보냈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은 HRW 등 인권단체 주도의 ‘중국 낙마 백지 투표 운동’에도 이사국 재선에 성공했다. / 박민준 기자

국제구조위원회 ‘강진 피해’ 아프가니스탄에 긴급대응팀 투입

국제 인도주의 구호단체 국제구조위원회(IRC)는 최근 규모 6.3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아프가니스탄에 긴급대응팀을 투입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IRC는 긴급대응팀이 의료를 포함한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지진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른 비정부기구(NGO)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살마 벤 아이샤 IRC 아프가니스탄 대표는 “국제사회가 헤라트 주민들과 연대감을 보여주고 현재 진행 중인 구호 활동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IRC는 이번 강진이 이미 취약한 지역사회의 상황을 악화시켰고, 착취와 학대의 위험이 높은 여성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은영 IRC 한국사무소 대표는 “아프가니스탄은 구조 지원을 받지 못해 주민들이 맨손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 지역의 상황은 매우 긴급하며 국제 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프간 강진’ 무너진 건물 앞에서 우는 소년

1988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IRC는 12개 주에 있는 수천 개 마을과 협력하고 있다.

현재 강진 피해를 돕기 위한 긴급 후원도 진행 중이다. / 양수민 기자

폭락하는 아르헨티나 통화...암시장서 달러당 1천 페소 돌파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경제 위기에 빠진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대선 주요 후보의 ‘페소화 퇴출’ 공약으로 외환시장이 패닉에 빠지면서 환율마저 요동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비공식 환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블루달러넷’) 정보를 보면 이날 아르헨티나 페소화 대비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5.01페소 급등한 1천 10페소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공식 환율 365페소의 거의 3배에 달한다.

‘블루 달러’는 이론적으로는 불법이지만, 국영 텔레비전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 매일 그 추이를 보도할 정도로 아르헨티나 외환 시장을 살피는 단서로 활용된다.

브라질과 함께 남미의 거대 경제 대국인 아르헨티나의 경제 불황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1천 페소 돌파는 ‘패닉 상태’의 외환 거래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로 보인다.

이런 경향은 “아르헨티나 페소를 미국 달러로 대체하겠다”며 이른바 달러화 도입을 공언한 급진적 우파 하비에르 밀레이(52) 후보가 최근 그 발언 공세를 높인 것에서 비롯됐다고 현지 일간 클라리오는 보도했다.

밀레이는 최근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국 통화를 분노보다 못한 것으로 깎아내리며, 시민들에게 달러 비축을 권유하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그는 “(페소/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달러화하기는 더 쉬워진다”며 페소화 가치 폭락을 부추기는 듯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현재 외환 보유 감소 대응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달에 200달러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블루 달러’ 암시장이 성행하고 있다.

/ 임순철 기자

SAMSUNG

Galaxy Z Fold5

samsung.com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매주 전화로 꼭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식사는 거르지 않는지
행여나 적적하지는 않나
혹시라도 이상한 전화를 받을까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봅니다

나를 한결같이 챙겨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농촌 독거 어르신 말벗서비스

NH농협은행은 2008년부터 농촌지역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안부 전화 서비스로 따뜻한 말벗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준 NH농협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BUSAN, KOREA |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2.4조원...올해 첫 조단위 '깜짝실적'

반도체 적자 축소, 모바일·디스플레이 선방 추정...매출은 67조원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2조원이 넘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다. 올해 들어 첫 조단위 영업이익이다. 주력인 반도체 부문의 적자가 다소 줄고,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부문이 실적 버팀목 역할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공식했다. 다만 영업이익이 6천억원대에 그친 1·2분기와 비교하면 실적 개선 개선세가 뚜렷하다. 직전 분기의 6천700억원보다는 3배 이상으로(258.2%) 증가했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조8천396억원을 30.5% 웃돌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다.

매출은 67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7% 감소했다. 지난 2분기의 60조100억원보다는 11.7% 증가했다.

이날 부문별 세부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에서 3조원대 안팎 적자를 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부문에서 낸 조단위 적자를 모바일경험(MX)과 삼성디스플레이(SDC) 부문 영업이익이 상쇄하며 실적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적자 규모는 4조원대 중반 적자를 낸 1분기나 2분기보다 다소 줄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사들의 최근 실적 전망치를 보면 대신증권은 부문별 영업이익을 DS -3조6천100억원, MX·가전(CE)을 포함하는 디바이스경험(DX) 3조7천200억원, SDC 1조5천210억원, 하만 2천760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SK증권은 DS -4조1천억원, DX 3조7천억원, SDC 1조6천억원, 하만 3천억원으로, 유안타증권은 DS -3조8천510억원, DX 3조7천400억원, SDC 8천400억원, 하만 2천500억원으로 각각 예상했다.

MX는 갤럭시 Z폴립5·폴드5 등 신형 스마트폰 판매 호조, SDC는 고객사 신제품 호재 등에 힘입어 비교적 호 실적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했다. 3분기에 감산 효과가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반기부터 이어진 감산은 보유 재고를 줄이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며 "감산에 따른 공급 조절 효과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해 3분기부터 D램 평균 판매단가(ASP)가 상승 전환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감산 확대에 따른 고정비 증가 여파로 이번엔 반도체 적자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한다.

감산 효과는 4분기에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과 재고 개선이 맞물려 실적 개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 내 발표된 증권사 실적 전망(컨센서스)을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의 4분기 연결 영업이익 추정치는 3조905억원이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3분기에 손익분기점(BEP)에 근접하기 시작한 삼성전자의 D램 수익성은 2차 감산 효과가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시작하는 4분기부터 회복세가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 주력 사업인 메모리 시장은 바닥을 통과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반도체 시장 선형지표로 통하는 D램 현물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는 등 업황 회복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실적 발표가 실적 바닥을 인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4분기에는 D램과 낸드 가격이 2021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동시에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31일 사업부별 실적을 포함한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한다.

/ 송원기 기자



쿠광 대만 진출 1년...한국 중소기업 1만2천개 참여

쿠광, 대만서 월방문자 140만명 韓 중소기업 1만2천개 참여

쿠광은 11일 대만 로켓배송·로켓직구에 참여한 한국 중소기업이 지난 9월 말 기준 1만2천개를 넘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에 대만에 진출해 로켓직구와 로켓배송을 시작했으며 지난 2분기부터 대만에서 가장 다운로드가 많은 쇼핑 앱 1위에 올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글로벌 트래픽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쿠광 대만 사이트 월간 방문자 수는 140만명 정도이다.

대만 로켓직구는 690 대만달러(2만8800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면 다음 날 대만행 첫 비행편을 통해 무료 배송한다.

대만 로켓직구 제품 90% 이상이 한국에서 배송되고, 상당수가 한국 중소기업 제품이다. 현지 로켓배송도 195 대만달러(8150원) 이상 구매하면 다음 날 무료 배송한다.

쿠광이 대만 판매 카테고리별 뷰티·패션·생활용품·주방용품·가전·유아용품 등으로 확대하면서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범위도 넓어졌다.

대만 로켓배송 제품은 대부분 한국산이며 그중에서도 중소기업 제품이 70%를 차지한다.

쿠광은 중소기업들이 각자 대만에 진출하려면 법인설립부터 현지 인력 채용, 영업 등 많은 공을 들여야 하지만, 쿠광을 통한 통관부터 재고관리·로켓배송·고객 응대를 '원스톱'으로 맡아준다고 설명했다.

유아 물티슈 업체 '순수코리아' 양철식 대표는 "최근 쿠광 대만 매출이 전체 회사 수출 비중의 50%에 도달했다"며 "대만 수출인력과 신규 생산설비에 10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컴퓨터 제조사 '티젠'도 올해 쿠광 대만 매출이 작년보다 10배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김병희 티젠 대표는 "2년 전 대만 오프라인 편의점에 진출했지만 매년 성장률이 1%에 그쳤다"며 "앞으로 3년간 인력증대 등 대만 수출에 1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형욱 기자

오늘부터 맥주 오른다...오비맥주, 출고가 6.9% 인상

오비맥주가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다. 오비맥주의 국산 맥주 제품 가격 인상은 작년 3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오비맥주는 재료가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트, 편의점 등에서 많이 팔리는 카스 500ml 캔 제품 가격은 종전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등 다른 주류업체들은 현재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료비와 물류비 등 가격 인상 요인이 있는 만큼 추후 가격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

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평균 9.8% 올랐으나 참이슬, 처음처럼 등 소주 가격은 반년째 동결돼 업계의 원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맥주 출고가 인상으로 인해 음식점에서도 맥주 가격이 더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으로 외식용 맥주와 소주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각각 4.4% 올랐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을 웃돈다.

/ 곽현주 기자

KFA 마나은행 OFFICIAL PARTNER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편

승부를 넘어 하나 된 태극전사의 눈부신 도전을 하나은행이 응원합니다

인도네시아 진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Signing of Business Collaboration Agreement
October 2023

현대캐피탈,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현지 법인 설립

현대캐피탈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현대캐피탈은 인도네시아 현지 여신전문금융사인 '파라미트라 멀티파이낸스'를 인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캐피탈 인도네시아'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대캐피탈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 지분 75.1%를 보유하고, 현지 재계 순위 4위인 시나르마스그룹(15.0%) 신한인도네시아(9.9%)가 주주로 참여한다.

시나르마스그룹은 신규 법인의 현지 자동차금융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신한은행은 현지 상품의 금리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경제성장률이 5.31%에 이르고, 세계 4위 인구수(2억7천753만 명)에 비해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현대자동차의 동남아시아 생산과 판매 거점도 인도네시아에 자리 잡고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판매 1위를 기록했다"며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이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손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단팔빵·소보루빵·크림빵 990원에 판매

2023 착!한 빵 프로젝트

단팔빵, 소보루빵, 슈크림빵

각 990원

파리바게뜨가 단팔빵, 소보루빵, 슈크림빵을 990원에 판매하는 '착!한 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행사 기간에 식빵 1종(오늘도 신선한 식빵)도 1천990원에 판매한다. 프로모션 기간은 강원·인천·제주 12~14일, 서울 16~18일, 충청·전라권 19~21일, 경상권 23~25일, 경기 26~28일 등이다.

날마다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1인당 최대 6개를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달리버리, 픽업)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파리바게뜨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착!한 커피' 행사가 2주간 200만잔 넘게 팔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은 데 힘입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 정윤성 기자



#파트너사이야기 #유독1주년 #새로운 친구발견



“ **한정된 고객에서 벗어나
시장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기존에도 유아 홈스쿨링 키트 정기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독과의 제휴는 새롭고 획기적인 시도에 도전해보는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저희는 이미 가입한 한정된 고객만을 위한 접근밖에 할 수 없었는데, 유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키즈가구 타겟 마케팅도 해볼 수 있었어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유독이 저희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준 셈이죠~

‘U+ 파트너사 키두 정세경 대표님’ ”

QR 코드 스캔하고, 당신이 만난 유플러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생각, 정세경님의 **WHY NOT?**

유플러스 유독 🔍

수도권매립지 내 폐기물 '꼼수' 반입...차량 수백대 적발

최근 2주간 단속에 140대 적발...상반기엔 645대 적발되기도

수도권 지역 폐기물 반입 차량들이 일 반 쓰레기와 재활용 폐기물을 혼합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등 불법 폐기물 반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수도권매립지 일대에서 폐기물 반입 차량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천303대 중 140대(10.7%)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재활용 대상' 혼합 반입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폐기물' 혼합 반입 61건, '침출수 누출 및 방지 장치 불량' 4건 등으로 집계됐다. 혼합 반입의 경우 폐기물을 펼친 뒤 육안 검사로 불법 폐기물 비율이 전체의 10%를 초과하면 단속에 적발되는데 10대 중 1대꼴로 불법 행위가 드러난 셈이다.

적발된 차량에서는 반입이 금지된 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모습

트병과 캔 등 재활용품을 비롯해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담긴 생활폐기물 과 이불·폐가구·여행 가방 등 미등록 폐기물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인천·경

기의 58개 지자체 생활폐기물과 건설폐 기물 등이 반입되고 있다.

지역별로 폐기물 운반 등록 차량만 출입할 수 있으며 입구에 들어온 차량은 계량대를 통과해 매립지에 가져온 폐기물을

버린다. 앞서 공사는 지난 4~5월에도 두 달간 폐기물 반입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1만1천54대 중 645대(5.8%)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미등록 폐기물 혼합 반입은 357건이었고 재활용 대상 혼합 반입 237건, 침출수 누출 및 방지 장치 불량 18건, 음식물 폐기물 혼합 반입 16대 등이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도권매립지 반입 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과 반출 조치 등 벌칙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는 추후 월 벌점 누계에 폐기물별 1당 반입 단가를 곱한 벌점 가산금을 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반입 차량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규정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작년 10월 열린 강남구 취업박람회

강남구 취업박람회 13일 개최 "LG전자 등 17개사 226명 채용"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서 '2023 강남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인 LG전자, 포스코인

터내셔널, 케이티아이에스를 비롯해 오 픈솔, 아고다, 이마트에브리데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유), KB라이프파트너 스 등 17개 기업이 참여해 모두 226명

을 뽑을 예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청년, 여성, 중년 등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직 희망자는 '강남 잡페어 홈페이지'(jobfair.incruit.com/gangnamjobfair/)에서 기업별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참가기업들은 채용 설명회를 비롯해 채용·면접 상담을 진행한다. 현장 면접을 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틱스타운 안영일 센터장이 '백지 위에 그리는 꿈'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창업 노하우를 소개하는 등 취업특강이 개최된다. 부대행사로 ▲ 퍼스널 컬러 진단 ▲ 면접 해어&메이크업 ▲ 1:1 취업 컨설팅 등도 진행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기업과의 현장 면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업에는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구인 수요가 높은 미래산업 분야 일자리 교육과 상담 등을 확대해 구민들의 취·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조규현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원주시 반려동물 문화행사 14일 개최...체험행사 다채

민선 8기 공약, 올해 처음 열려...1인당 1마리만 동반

2023년 원주시 반려동물 문화행사가 오는 14일 무실동 중앙 근린공원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행사는 개그맨 김수영씨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종중 훈련사의 토크콘서트도 펼쳐진다.

이어 보호자의 지시에 따라 반려견이 여러 장애물을 넘거나 통과하는 어질리티 독 스포츠(agility Dog Sports) 대회가 열

린다. 또 각종 체험행사와 반려동물용품 플리마켓 등을 운영한다. 반려인은 물론 반려동물도 좋아하는 비반려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 입장 시 반드시 보호자 1인당 반려견 1마리만 동반해야 하고, 2m 이상의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공격성이 강한 맹견이나 45kg 이상의 견종은 안전상의 문제로 행사장에 입장할 수 없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11일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올해 처음 개최하는 반려동물 문화 행사"라며 "반려견과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진주 기자



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환급

울산시는 전세 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가 전세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보증료 지원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보증료를 실제 지급한다.

지원 절차는 신청인이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이다. 지원 조건은 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거주,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다.

단,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되거나 전월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 채민서 기자

파국 피한 부산지하철 노사...4년 연속 무분규 교섭



약수하는 부산지하철 노사

부산지하철 노사가 임단협 최종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이번 합의로 부산지하철은 4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이 됐다.

부산지하철 노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부산 노포차량사업소 회의실에서 만나 6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노사는 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경영효율화·인력 총원 등 크게 3가지였던 쟁점에 대해 교섭 막판 합의점을 도출했다.

합의 내용은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임금 1.7% 인상, 구조조정은 원점 재검토, 직무성과급제는 노사 자율 합의로 추진, 안전 인력 증원 확대 노력 등이다.

노사는 추석 연휴 이후부터 거의 매일 만나 물밑 교섭을 하며 견해차를 좁혀왔고 이날 최종교섭에서 마침내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 모두 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합의의 밑바탕이었다고 교섭 참석자는 전했다.

지난달 26일 취임한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신임 사장은 진정성 있는 협의로 노조의 마음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역시 11일로 예정된 공공운수노조의 2차 공동파업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측과의 교섭에 충실시 임했다.

/ 오준중 기자



평창군, 2023 캠프 개최 내년 3월까지 진행

2018평창기념재단(이하 재단)은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23 수호랑 스포츠 캠프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참가자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단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평창군이 주최하고 재단이 주관하는 이 캠프는 2박 3일간의 숙박형 캠프로, 봅슬레이와 바이애슬론 등 올림픽 종목을 체험할 수 있다.

또 평창올림픽의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올림픽 기념관 투어와 평창 관광명소 방문, 이색적인 지역문화 체험 일정도 있다. 특히 올해는 100여일 남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붐업 조성은 물론 청소년올림픽을 체험할 수 있는 스페셜 캠프로 진행한다.

/ 강현주 기자

시대를 앞서 가는 시선

앞만 바라보는 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큰 그림을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한화생명만의 시선은 모든 방향으로 향합니다



63 한화생명빌딩

LIFEPLUS TRIBES

한화의 함께 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드림플러스

www.hanwhalife.com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G-100 기념행사 서울광장 개최

아시아 최초 동계 유스올림픽 내년 1월19일...성화 투어로 대장정



서울시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를 100일 앞두고 중구 서울광장에서 'G(Game)-100' 기념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내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횡성에서 개최되며 80여개국 1천900여명이 참가해 7개 경기, 1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기념행사에는 대회의 주인공인 고등부 선수를 비롯해 청소년들이 성화 점화자로 참여하며 크라이닉, 이영지, 라이즈, 잊지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진종오·이상화 공동 조직위원장, 김연아·윤성빈·김예리·박재민 홍보대사 등도 참석한다.

대회에 앞서 열기를 더할 성화 투어는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부산(10월14일), 세종(10월25일), 제주(10월28일), 광주(11월4일) 등을 거쳐 강원도 내 18개 시군으로 이어진다.

오 시장은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서울시민과 함께 응원한다"며 "지구촌 청소년이 주인공인 대회인 만큼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진종오·이상화 공동 조직위원장, 김연아·윤성빈·김예리·박재민 홍보대사 등도 참석한다.



상리테니스장

"불가능한 일반 예약"...테니스코트 '황금시간대'는 동호회 차지

대구시내 공공 테니스 코트의 '황금시간대'를 각종 동호회가 독차지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개월씩 장기 예약을 하는 탓에 평일 저녁과 주말은 회원이 아닌 경우 자유롭게 코트를 이용하기 힘들어 관할 당국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대구 북·서구에 따르면 공공 체육 시설인 연암·감삼·상리 테니스장은 각기 다른 체육·테니스협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해당 테니스장에서 일반 시민은 '황금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평일 오후 7시~10시와 주말에는 이용이 불가능에 가깝다.

테니스 동호회들이 6개월이나 1년씩 코트를 장기 예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테니스장에 평일 저녁 빈 코트가 있는지 전화로 문의했지만 모두

"동호회가 쓰고 있어 없다"고 답변했다. 일부 테니스장은 모든 인조잔디 코트가 1년씩 장기 예약이 돼 있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6개월을 예약하면 한 달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북·서구의 관련 조례가 오히려 장기 예약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서구 주민은 "코트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이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구의 경우 감삼·상리테니스장을 이용하지 못하면 상리공원과 비산철로변에 있는 무료 '우레탄' 테니스 코트를 이용해야 한다.

한 테니스 코치는 "우레탄 코트는 딱딱해서 부상 위험이 있고 공도 빨라서 테니스 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하지만 이용할 곳이 없어 아쉬우면 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남유정 기자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 상생 논의 본격화... '3자 협의체' 가동

"협의 첫 단추"...지구단위 계획 심의 하루 앞둔 12일 2차 회의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광주시, 광주신세계, 인근 상가인 금호월드 등 3자 협의체는 10일 오후 2시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정해인 금호월드 관리단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예상보다 2시간 40여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는 기존에 금호월드 측이 제시한 협의안 등 상생 방안과 관련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3자 협의체 첫 회의

그러나 3자 협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금호월드 측은 금호월드 건물 매입, 건물 공동 재개발, 3자 협의체 구성 등 3가지 협의안을 제안했으며 광주신세계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는 거부했다.

3자 협의체는 개별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12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백화점 확장 이전에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수립 안전에 대한 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가 오는 13일로 예정돼 심의에 앞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광주신세계는 현 백화점 옆 아트 앤 컬처 파크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도시관리 계획 입안을 신청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 백화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시, 지하차도 기부채납, 인근 금호월드 포함 주변 민원 적극 해소 등 모두 9개 조건을 내걸어 지난 3월 말 입안에 동의했다.

/ 권정석 기자

중랑구, '악취지도' 토대로 하수도 냄새 잡는다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연차별 하수 악취 저감 대책 수립 및 악취 저감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하수 악취 제거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역 전역의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악취지도'를 완성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하수관로 384km 중 악취 저감이 필요한 4.5등급의 하수관로는 총 41km, 약 10%로 확인됐다.

구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 악취 5등급 하수관로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 악취 저감 대책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용역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형 하수 악취 목표관리제'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하수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는 우수·오수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 내 건물 정화조가 꼽힌다. 화장실 및 주방에서 사용한 생활하수가 모여 부패하는 과정에서 정화조 내부에 악취물질인 황화수소가 생성되며, 오수와 함께 하수도를 통해 배출돼 도로 빗물받이와 맨홀 등으로 악취가 퍼진다는 것이다. 구는 지난 5년간 공공 및 개인 하수도에 악취 저감 시설 1천4개소를 설치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주기적인 세정 등을 실시하며 악취 저감 노력을 해온 바 있다.

진 중인 '서울형 하수 악취 목표관리제'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하수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는 우수·오수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 내 건물 정화조가 꼽힌다. 화장실 및 주방에서 사용한 생활하수가 모여 부패하는 과정에서 정화조 내부에 악취물질인 황화수소가 생성되며, 오수와 함께 하수도를 통해 배출돼 도로 빗물받이와 맨홀 등으로 악취가 퍼진다는 것이다. 구는 지난 5년간 공공 및 개인 하수도에 악취 저감 시설 1천4개소를 설치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주기적인 세정 등을 실시하며 악취 저감 노력을 해온 바 있다.

구는 지난 5년간 공공 및 개인 하수도에 악취 저감 시설 1천4개소를 설치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주기적인 세정 등을 실시하며 악취 저감 노력을 해온 바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부터 집중하고 있다"라며 "하수 악취가 완전히 제거되는 날까지 지속적인 저감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고현욱 기자

9년째 '구제역 청정지역' 경남도, 백신 미접종 농가에 과태료



"구제역 백신 접종 중"

지난 5월 충북 청주시·증평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 염소 1천2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구제역이 발생한 두 지역 축산농가 11곳 중 7곳에서 백신 항체가 법정 기준치(80%)에 크게 못 미쳤다.

축산 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해 구제역이 발생한

년 합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9년째 구제역 청정 지역이다.

구제역은 백신 접종으로 전염을 막을 수 있는 가축 질병이다.

그러나 발열, 유산 등을 우려해 가축에 백신 접종을 꺼리는 축산농가가 있다. 경남도는 사육 가축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는 1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축방역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하고, 3회 이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적발되면 농장 폐쇄, 사육 제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소·돼지·양·염소·사슴 등 밭갈이 돌로 갈라진 동물(우재류)이 감염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다.

구제역 감염 동물은 입이나 콧등에 물집이 생기면서 폐사까지 이르고, 젖소는 착유량이 크게 준다.

경남도는 2011년 김해·양산시, 2014

/ 김유정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GS칼텍스가 응원합니다

결제는 한번에 제대로 적립과 할인은 저절로

바로주유 등록하기

에너지플러스카드 Edition2
바로주유 50% 할인 혜택과 최대 30% 할인 혜택까지 가능

에너지플러스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아직도 주유할 때 지갑 꺼내세요?

energy plus 앱 다운받고 바로주유 하세요

앱 바코드만으로 주유, 결제, 할인, 적립까지 한 번에 끝!

- 에너지플러스 앱 다운로드
- 바로주유 접속
- 결제/할인/적립 수단 미리 등록
- 연간 카운 지갑 없이 주유 끝
- 5만원 이상 주유하면 할인받으세요

에너지플러스는 언제, 어디서든 그 가능성을 넓혀드리는 의미를 담은 GS칼텍스의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에너지플러스 앱은 GS칼텍스가 제공하는 Mobility service를 경험할 수 있는 모바일 채널로서 고객에게 편의성과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너의 질주에
국민이 함께할게

세계 랭킹 1위
'수영 괴물' 황선우

수많은 우승과 신기록에도
어제의 자신을 앞서기 위해
황선우 선수는 오늘도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올가을, 또 한 번의 힘찬 질주를 보여줄
황선우 선수를 KB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Korea Basic
KB금융그룹

 수영, 배드민턴 등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과 유망주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KB금융그룹의 후원은 계속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b KB 금융그룹**

APBC까지 류중일 체제 유력...KBO, 야구 전임감독 후보 본격 고민

내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등 앞으로 열리는 굵직한 국제 대회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을 지휘할 전임 감독 선임에 두고 KBO 사무국이 본격적인 후보 선별을 시작한다.

KBO 사무국은 8일 막을 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당장 다음달 열리는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을 비롯해 2024년 프리미어12, 출범 20주년을 맞아 2026년에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을 이끌 전임 감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년 일본 아이치·나고야에서 열리는 20회 하계 아시안게임의 감독 선발권은 프로 선수가 참가하더라도 아마추어 기구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있어 KBO 사무국이 간여할 수는 없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을 금메달로 이끈 류중일 감독도 대한야구소



야구 우승 이끈 류중일 감독과 코칭스태프

프트볼협회의 공모를 거쳐 감독으로 선임됐다.

KBO 사무국은 2020 도쿄 올림픽, 올해 WBC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2026년 WBC까지 대표팀의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향을 수립하고자 전임 감독제를 운용하고, 감독을 보좌할 코치도 전임

으로 선임한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한국, 일본, 대만, 호주 4개 나라 프로리그가 유망주들의 경연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한 APBC가 전임 감독의 데뷔 무대다.

그러나 2017년 초대 대회에 이어 6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리는 APBC가 오는 11월 16일 막을 올리는 터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전임 감독을 뽑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사정에 따라 사상 '최약체'라는 평가에도 한국 야구를 짊어질 유망주들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일군 류중일 대표팀 감독 체제가 APBC까지 이어지리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APBC도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프로 입단 3년 차 이내의 선수와 팀당 3명의 와일드카드(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출전하는 대회로, 대표 선발 자격이 이와 비슷했던 아시안 게임에서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한 젊은 유망주들이 또 한번 태극마크를 달고 이번에는 일본 도쿄돔을 누빌 것이다.

KBO 사무국은 우선 APBC를 마치고 나서 신중하게 대표팀 운영 방향을 설정해 내년 11월 프리미어12와 2026년 3월 WBC를 이끌 적임자를 모색할 계획이다.

/ 최준용 기자



아스널전 멀티골을 폭발한 손흥민

아스널전 터진 손흥민 시즌 4호골 토트넘 '9월의 골' 선정

손흥민이 2023-2024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6라운드 아스널과 경기에서 터뜨린 첫 번째 골이 토트넘이 자체 선정한 '9월의 골'로 뽑혔다.

토트넘 구단은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에서 넣은 첫 번째 골이 9월의 골"이라며 "투표에 참여한 팬 중 45%의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달 24일 아스널과 EPL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홀로 2골을 책임지며 2-2 무승부를 이끌었다.

전반 26분 선제골을 내준 토트넘은 16분 후 역습으로 동점 골을 쏘았다.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을 뚫은 제임스 매디슨의 킥백을 골 지역 왼쪽에서 왼발로 방향을 바꿔 동점 골로 연결했다. 손흥

민의 시즌 4호 골이었다.

기세가 오른 손흥민은 1-2로 뒤진 후반 10분 또 한 번 매디슨이 내준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팀을 패배의 위기에서 건져냈다.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6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이다. 엘리 홀란(8골·맨체스터 시티)에 이어 알렉산데르 이사크(뉴캐슬)와 함께 올 시즌 EPL 득점 공동 2위다.

9월에만 6골을 쏟아낸 손흥민은 EPL '이달의 선수'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수상 시 개인 통산 4번째다. 손흥민은 앞서 3차례(2016년 9월·2017년 4월·2020년 10월) '이달의 선수'를 받았다.

시즌 초반 필필 나는 손흥민을 앞세운 토트넘은 6승 2무로 EPL 선두를 달리고 있다.

/ 박재호 기자

김시우·김주형, PGA 슈라이너스 오픈 우승 후보 1, 2위



아시안게임 때 김시우의 아이언샷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시우와 디펜딩 챔피언 김주형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전문가가 뽑은 PGA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우승 후보 1, 2위에 올랐다.

PGA투어닷컴은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개막을 이틀 앞둔 11일(한국시간) 게시한 파워랭킹에서 김시우를 1위, 김주형을 2위에 올려놓았다.

PGA투어닷컴 파워랭킹은 대회 때마다 대회 역대 성적과 최근 경기력 등을 분석해 15명의 우승 후보를 예측하는 코너다.

PGA투어닷컴 파워랭킹에서 한국 선수가 1, 2위에 오른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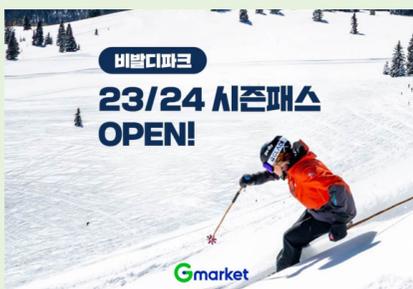
/ 한지훈 기자

PGA투어닷컴 파워랭킹은 김시우가 열흘 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사실을 내세우면서 올해 김시우가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시우가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이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TPC 서머린에서 두 번 공동 8위와 공동 15위 한번 등 좋은 성적을 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1위로 꼽

았다. 김주형은 지난해 이곳에서 우승한 데다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공동 20위와 프랑스 오픈 공동 6위 등 최근 경기력이 뜨겁다고 분석했다.

J.T. 포스틴(미국), 캐머런 데이비스(호주), 톰 호기(미국), 루트비히 아베리(스웨덴), 애덤 샹크(미국) 등이 김시우와 김주형 다음으로 우승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선택됐다. PGA투어닷컴의 또 다른 대회 성적 예측 코너인 '전문가의 선택'도 김시우와 김주형은 샹크, 아베라와 함께 유력한 우승 후보로 뽑았다.

스키 시즌이 온다...G마켓, 비발디파크 시즌 패스 할인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스키 시즌권 판매가 본격화되고 있다.

11일 G마켓은 이날부터 '비발디파크 23/24 시즌패스' 프로모션을 시작, 로커(사물함)와 리조트 숙박 등 각종 혜택을 추가한 스키 시즌권을 단독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비발디파크 시즌패스는 스키장 이용 형태에 따라 3종으로 구성했다. '스마트'는 기본 혜택을 충실히 담은 상품이고, '프리미엄'은 자녀가 있는 스키어에게 추천하는 상품, '리미티드'는 3인용 로커와 전용 주차장 혜택을 포함했다.

구매한 시즌권은 스키장 개막일부터

페달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구매 시 행사 카드 할인, 스키복 세탁 할인 쿠폰 지급 등의 혜택이 있다.

G마켓은 오는 18일에는 비발디파크 일반 시즌권도 다른 채널보다 하루 먼저 판매한다.

G마켓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본격적인 겨울 시즌을 앞두고 스키 마니아를 위해 비발디파크 로커 시즌 패스 단독 할인 판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앞서 티몬은 지난달 19일부터 전국 스키장 통합 이용권 'X5 시즌 패스' 판매를 시작해 첫날 하루에만 1만7천명의 구매 고객을 끌어 74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인기를 끌었다. X5 시즌 패스는 용평리조트, 하이원리조트, 웰리힐리파크, 엘리시안 곤촌, 에텐밸리리조트 등 5개 스키장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시즌권이다.

/ 박소희 기자

유로 2028 개최지는 영국·아일랜드...토트넘 홈구장서도 경기

2028년 열리는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8) 개최지가 영국과 아일랜드로 낙점됐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잉글랜드)의 홈 경기장인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도 유럽 국가 간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0일(현지시간) 영국, 아일랜드를 최종 대회 개최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가 막판 유치 의사를 거둬 단 일 후보가 된 영국·아일랜드가 낙점된 것인데, 튀르키예는 이탈리아와 2032년 대

회를 유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영국 내 4개 지역인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와 이웃 국가 아일랜드까지 5곳에서 유로 2028이 동시에 펼쳐진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 에버턴의 리버풀 스타디움 등 9개 지역의 10개 경기장이 대회 시설로 선정됐다.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와 유로 2028 공동 개최를 강력히 희망해왔다.

/ 오민수 기자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전력거래소



지구 탄소 다이어트 K-Energy 플랫폼, 전력거래소

우리가 살을 빼면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지구도 탄소를 빼면 더 건강해집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실행기관 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속에서 우리나라 전력계통을 365일 24시간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탄소제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력거래소가 "K-Energy"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화란' 김창훈 감독 "송중기 출연 반복하는 악몽 시달렸죠"

"모텔서 알바하며 쓴 시나리오...어둠 속에서 빛 찾는 감독 되겠다"

"화란"은 제게 꿈처럼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이게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값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오는 11일 개봉하는 영화 '화란'을 연출한 김창훈 감독은 자신의 첫 장편 영화를 내놓는 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작품은 올해 5월 제76회 칸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진출했고 최근에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초청도 받았다. 10일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난 김 감독은 "첫 영화로 칸에 가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뤄졌다"며 "칸 초청 소식을 듣고 모든 감각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울음이 터졌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화란'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소년 연구(홍사빈 분)가 조직의 중간 보스 치건(송중기)을 만나 더 큰 폭력과 맞닥뜨리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송중기가 '노캐런티'로 주인공이 아닌役に 출연해 화제가 됐다.



영화 '화란' 속 한 장면

"송중기 배우와는 늘 함께 작업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기존 작품에서도 문득문득 (서늘한) 눈빛이 나왔는데, 이를 극대화한 작품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모망이 있었죠. 송중기 배우가 출연해준 덕에 이 이야기가 출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고 영광일 따름입니다."

김 감독은 송중기의 출연 소식을 듣고부터 "일정이 안 맞아 출연할 수 없게 됐다"는 악몽에도 종종 시달렸다고 웃었다.

송중기는 치건 역을 훌륭히 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말형' 노릇도 톡톡히 했다고 김 감독은 말했다.

"송중기 배우가 치건에 대해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순간에 진심이었고, 글(시나리오)로만 존재하는 캐릭터는 결국 죽는 것이잖아요. 이를 살아 숨 쉬게 하는 건 배우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홍사빈, 김형서 배우도 첫 장편 영화라 보니까 어설플 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송중기 배우가 다가가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송중기 배우가 다가가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화란'은 김 감독이 대학을 졸업하고 생계를 위해 모텔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16년 시나리오를 쓴 작품이다. 2012년 단편 '댄스 위드 마이 마더'를 선보인 이후 제작비가 없어 차기작을 내놓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김 감독은 "항상 영화를 만들겠다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장편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를 해소했다"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도 글을 계속 썼다"고 회상했다.

그는 사회에서 쓴맛을 본 직간접적 경험을 녹여 '화란' 시나리오를 쓸 수 있었다고 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가상의 도시가 배경인 이 영화는 내내 어둠과 스산한 분위기를 풍긴다. 등장인물에도 끝없이 불행과 비극이 닥친다.

김 감독은 특히 "폭력적이고 뒤틀린 환경과 어른들이 한 사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얼마나 큰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 했다"고 설명했다. / 임성호 기자

박서준 할리우드 진출작 '더 마블스' 11월 8일 개봉



기에 빠지면서 이들과 새로운 팀플레이어를 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박서준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의 새로운 캐릭터인 '안 왕자' 역을 맡았다. 그가 할리우드 작품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배급사는 박서준이 푸른빛이 감도는 갑옷을 입은 채 군대를 이끌고, 군중 틈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예고편을 내놨다. 최근 공개된 공식 포스터에도 캡틴 마블 옆에서 칼을 쥔 그의 모습이 담겼다.

'더 마블스'는 2018년 나온 '캡틴 마블'의 후속편으로 니아 다코스타 감독이 연출했다. 브리 라슨과 박서준 외에도 티오나 페리스, 이만 벨라니, 재이 에슈턴, 새뮤얼 L. 잭슨 등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했다.

캡틴 마블이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모니카 랬보, 카말라 칸과 위치가 바뀌는 위

/ 권유희 기자

코요태, 12월 대구서도 콘서트 연다

그룹 코요태가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콘서트를 연다고 10일 소속사 제이지스타가 밝혔다.

코요태는 12월 2일 오후 6시 대구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콘서트 투어 '2023 코요태스티벌: 순정만남' 대구 공연을 개최한다.

소속사에 따르면 '코요태스티벌'은 코요태의 콘서트 브랜드로, 작년 콘서트보다 한층 규모를 키웠다는 게 특징이다.

서울 공연은 11월 17~18일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다. 다음 공연 지역들도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대구 공연 티켓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오픈된다. / 장수경 기자



신상 털기부터 거짓 사생활 폭로까지...일반인 예능의 명과 암

연애 리얼리티 '나는 솔로'·'하트시그널' 등 출연진 잇단 잡음

사생활 폭로부터 고소전까지, 예능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은 일반인 출연자들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0일 방송가에 따르면 뜨거운 화제 속에 최근 종영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는 방송 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혼을 목적으로 모인 남녀를 관찰하는 이 프로그램은 '빌런'이라 불리는 출연자를 내세워 '육하무인' 보는 재미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렸다.

ENA에서 2.2%, SBS플러스에서 3.7%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9월 13일 방송)을 경신했고,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집계하는 9월 1~4주차(4일~10일 1일) 'TV-OTT 비드라마 화제성' 2위를 연속 기록했다.

최종회 방송 직후 총장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는 25만명이 넘는 동시 접속자가 몰리기도 했다.

역대급 인기에 비례해 출연진에 대한 관심과 악플도 많았다. 출연자의 문제 행동을 집중된 게시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고, 이들을 난도질하는 자칭 심리분석 콘텐츠도 유튜브에서 덩달아 인기였다.

이런 콘텐츠에는 출연진을 회초리질하는 댓글이 줄지어 달렸고, 출연자 개인 소셜미디어(SNS) 계정까지 찾아가 악플을 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시청자들의 사과 요구에 16기 출연자 4명이 방송 중 사과문을 게재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각종 폭로글도 인터넷을 달궜다. 한 남성 출연자가 정치색이 강한 유튜브를 운영했다는 의혹, 또 다른 남성 출연자가 사업 동업자에게 주식매수대금 약 4억원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있다.

16기 순자는 전남편의 여동생이라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순자가 아이를 방치하고 유혹으로 쓴 카드 빛이 1억원에 달한다'는 글을 올리자, "제게 시누이는 없고, 술도 안 마신다. 카드는 온 일질 없다"고 전면 반박한 바 있다.

방송 후에도 대중의 관심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같은 가수 영숙과 불화설이 제기됐던 육순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육순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방송이 끝난 후 하루가 멀다하고 영숙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

이 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방송에서 한다더라"며 "대형 로펌을 통해 영숙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종영한 채널A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4' 여성 출연진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지영은 교제하는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알리기 위해 방송에 출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다른 출연자 김지민은 고등학교생일 때 노출 및 선정적인 방송을 진행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 신지호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1533-1545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WAVE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ww.thewave.net >



우리가 그리는 2030부산엑스포는 어떤 모습일까요?

2030부산엑스포를 통해
기후변화, 양극화와 같은
인류가 마주한 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SK도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